

최근 10년간 20~40대 개신교인 절반 가량 감소!

우리 연구소는 만 19세 이상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중고생)의 종교 분포와 현황, 가나안 성도 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전국 5,451명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이번 넘버즈를 통해 발표한다.

눈에 띄는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 인구(만 19세 이상)는 2012년 22.5%에서 2023년 16.6%로 10년 사이 6%p 감소했으며, 그중 20~40대 개신교인은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30대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까지 감소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신교인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9%로 일반 국민의 32%보다 크게 높아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우리 사회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추세 가운데 그나마 20~30대 개신교인 비율이 다른 종교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과 청소년 종교 인구 중 절반이 개신교인이라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 국민 종교 분포 및 현황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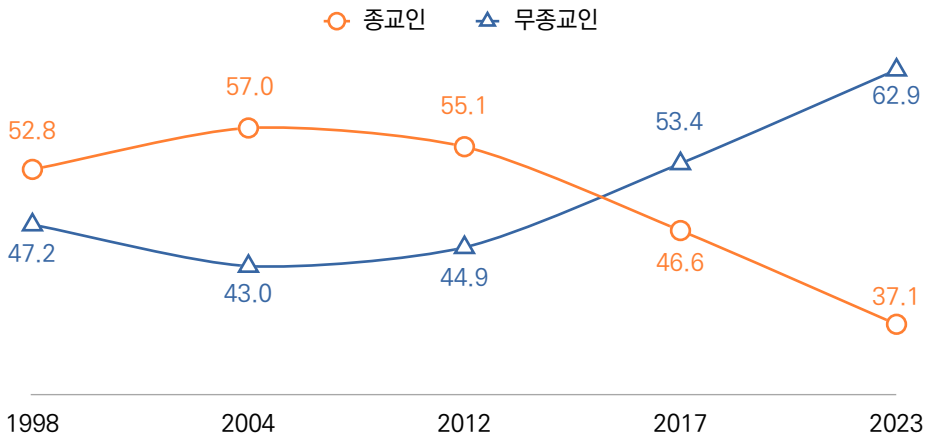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청소년(중고생) 및 성인 남녀
표본 규모	총 5,451명 - 만 19세 이상 4,751명 - 청소년(중고생) 700명
조사 방법	- 만 19세 이상 : 휴대전화 RDD* *Random Digit Dialing : 무작위로 생성된 무선 전화번호 조사 - 청소년(중고생) :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700명
표본 추출 방법	- 만 19세 이상 :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 - 청소년(중고생) : 지역/학년별 비례할당
표본 오차	- 만 19세 이상 : $\pm 1.4\%$ (95% 신뢰수준) - 청소년(중고생) : $\pm 3.7\%$ (95% 신뢰수준) (무작위 추출 가정시)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 만 19세 이상 : 2023년 10월 18일 ~ 11월 1일(15일간) - 청소년(중고생)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3일(7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종교 인구 분포] 한국사회,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

- ▶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종교 인구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2023년 10월 조사에서 우리나라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은 62.9%로 가장 저점을 찍었던 2004년 43.0% 대비 20%p가량 큰 격차를 보이며 급증했다. 1998년 이래 앞서던 종교인 비율은 2017년 무종교인에 역전됐고, 이후 무종교인이 점차 증가하며 종교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종교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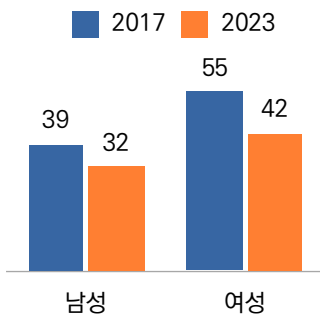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1998~2017년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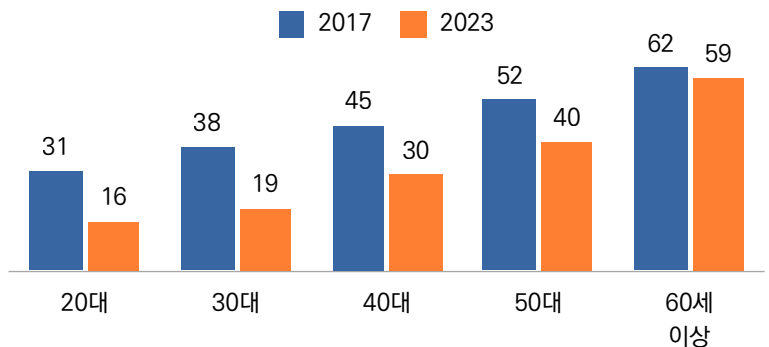
◎ 20·30대 종교인, 최근 6년 사이 절반 감소

- ▶ 종교를 가진 '종교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 ▶ 2017년과 2023년 조사를 통해 지난 6년 사이의 종교인 특성을 비교해 보니 2023년은 남성 32%, 여성 42%로 6년 전 대비 남녀 종교인 모두 감소했고, 특히 여성의 감소 폭이 더 컸다. 또 20·30대의 종교인 비율은 2023년 각각 16%, 19%로 2017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해 20~30대의 종교인은 해당 세대에서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성별 종교인 분포 변화 (만 19세 이상, %)



[그림]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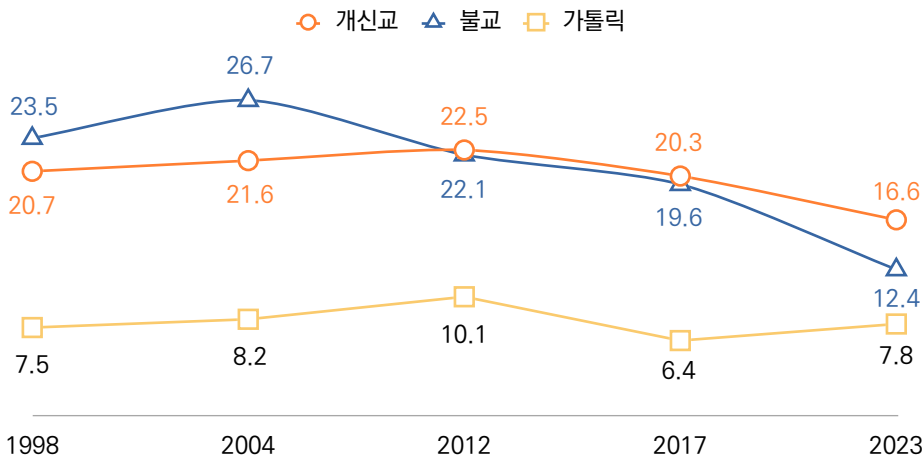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0 자리로 표시

02

[종교별 인구] 개신교 인구 비율, 최근 10년 사이 6%p 하락!

- ▶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인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개신교, 불교의 경우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2023년 불교 인구의 하락 폭이 2012년 대비 -10%p로 매우 컸고, 개신교는 2012년 정점(22.5%)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 최근 10년 새(2012~2023) 6%p 감소했다.
- ▶ 20대와 30대의 개신교인 비율은 각각 9%와 11%로 다른 종교 대비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 종교 인구 비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20~30대의 종교인 중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것이 희망적이다.

[그림] 종교별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자료 출처 : 1998~2017년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표] 종교별/인구 특성별 비율 (2023, 만 19세 이상, %)

구분	성별		연령별					2023 전체	2012* 전체	증감 (2023-2012)
	남성	여성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개신교	15	18	9	11	14	17	24	17	23	-6%p
불교	11	14	4	4	8	14	21	12	22	-10%p
가톨릭	6	9	2	4	7	9	12	8	10	-2%p
기타	0.3	0.3	0.4	0.0	0.3	0.2	0.4	0.3	0.4	-0.1%p
무종교	68	58	85	81	71	60	41	63	45	18%p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출처 : 2012년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03

[개신교 인구]

20~40대 개신교인, 최근 10년간 절반 가량 감소!

- ▶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 22.5%에서 2023년 16.6%까지 감소했다. 연령/지역 등 세부 특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대부터 40대까지 개신교인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량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30대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까지 감소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의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표] 인구 특성별 개신교 인구 변화 추이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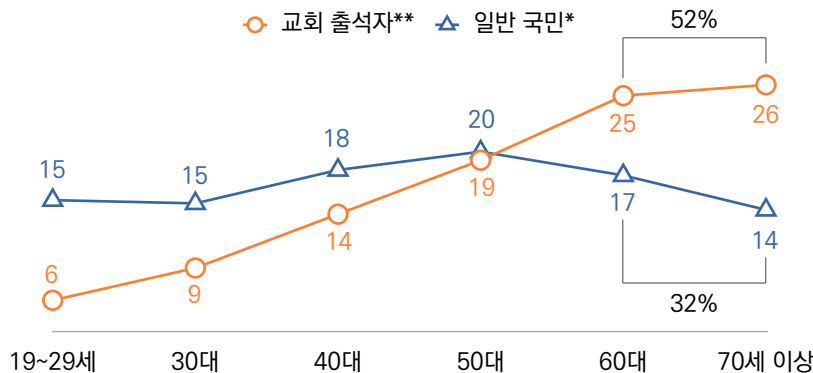
구 분		1998년*	2012년*	2023년	증감 (2023-2012)
전 체		20.7	22.5	16.6	-5.9%p
성별	남성	17	21	15	-6%p
	여성	24	24	18	-6%p
연령	19~29세	20	19	9	-10%p
	30~39세	19	21	11	-10%p
	40~49세	24	26	14	-12%p
	50~59세	26	23	17	-6%p
	60대 이상	19	24	24	0%p
지역	서울	26	28	17	-11%p
	인천/경기	28	27	18	-9%p
	대전/세종/충청	19	22	18	-4%p
	광주/전라	24	25	22	-3%p
	대구/경북	10	14	14	0%p
	부산/울산/경남	11	14	9	-5%p
	강원/제주	20	14	19	5%p

*자료 출처 : 한목련, '한국기독교분서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 교회의 고령화 속도, 우리 사회보다 빨라!

- ▶ 일반 국민과 교회 출석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대의 경우 일반 국민 대비 개신교인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반면 60대 이상 비중은 교회 출석자가 52%로 일반 국민 32%보다 20%p 높게 나타났다. 교회가 우리 사회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고, 고령화 속도도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집단별 연령 비중 비교 (202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통계

**실제 연령별 총인구를 바탕으로 개신교인 비율과 가나안 성도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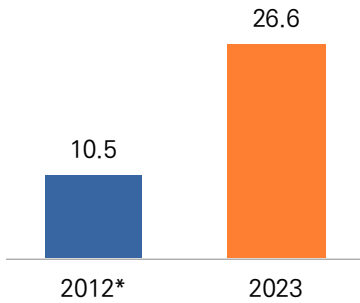
04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비율, 지난 10년 새 2.5배 증가!

-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2012)와 이번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 비율은 2012년 10.5%에서 2023년 26.6%로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4명 중 1명 이상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천, 소위 가나안 성도인 셈이다.

[그림] 가나안 성도** 비율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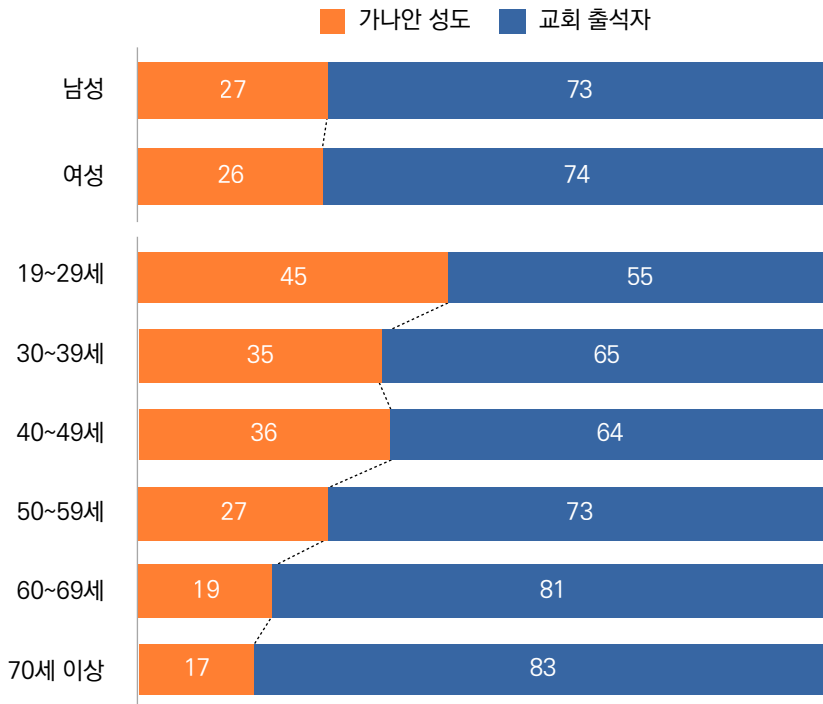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목협,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가나안 성도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없는 자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하 교회 출석자로 정의함

◎ 30·40 개신교인 3명 중 1명 이상은 가나안 성도!

- ▶ 개신교인 중 가나안 성도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대가 45%로 가장 높고, 30, 40대도 각각 35%, 36%로 3명 중 1명 이상이 가나안 성도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나안 성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층이 될수록 다시 교회로 회귀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그림] 성/연령별 가나안 성도 비율 (개신교인, 만 19세 이상, %)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05

[청소년 종교 실태]

청소년 종교인과 개신교인 비율, 성인보다 더 낮아!

- ▶ 그렇다면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전체 청소년 중 종교가 있는 경우는 2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2.4%는 무종교인이라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무종교인 비율이 성인보다 높은 점이 주목된다.
- ▶ 개신교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3.6%로 불교(7.6%), 가톨릭(5.7%) 비율을 합한 수치와 비슷했다.

[표] 종교 현황 비교 (성인 vs 청소년, %)

	성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중고생)
개신교	16.6	13.6
불교	12.4	7.6
가톨릭	7.8	5.7
기타	0.3	0.7
무종교인	62.9	72.4
계	100.0	100.0

◎ 개신교 청소년 인구,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크게 떨어져!

- ▶ 청소년의 종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 종교에서 남학생 비율이 높았는데, 개신교의 경우 남학생 17%로 여학생(10%)보다 높았다.
- ▶ 특히 중학생 비율은 17%인데, 고등학생에서 10%까지 떨어져, 다른 종교에 비해 학령별 종교 인구 비율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표] 청소년 종교별/인구 특성별 비율 (만 14~18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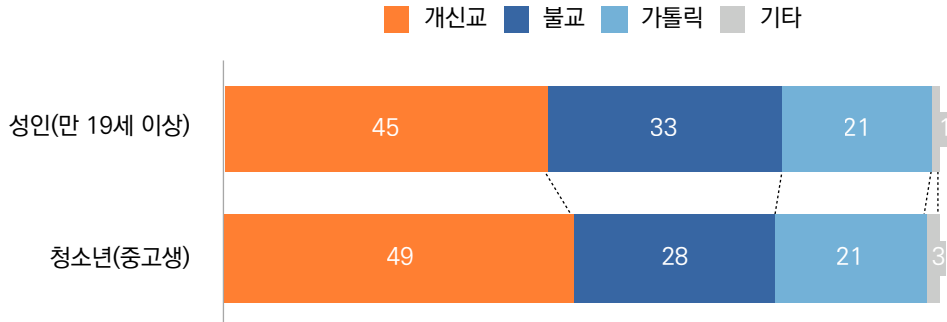
	전체	성별		학령별	
		남학생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개신교	14	17	10	17	10
불교	8	9	6	8	7
가톨릭	6	7	5	5	7
기타	0.7	0.8	0.6	0.8	0.6
무종교	72	66	79	69	76
계	100	100	100	100	100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 청소년 종교 인구 중 절반은 개신교인!

- ▶ 무종교인을 제외한 종교를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종교 점유율을 살펴보면 청소년 개신교인의 비중은 49%로 성인의 45%보다 높았다.

[그림] 종교 점유율 (성인 vs 청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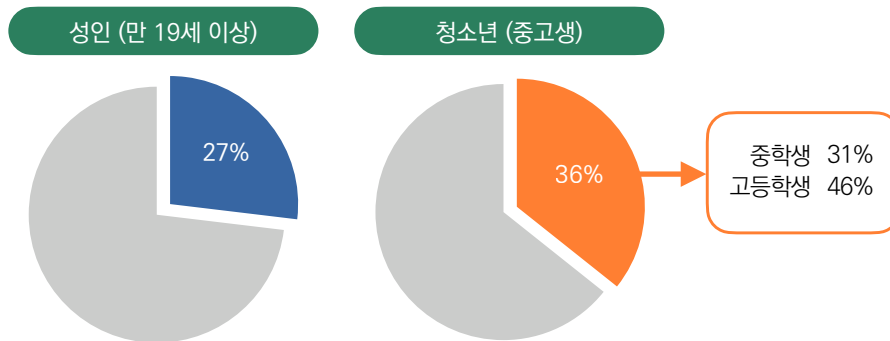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 하지만 청소년의 가나안 성도 비율, 성인보다 더 높아!

- ▶ 개신교인 성인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27%였는데, 청소년의 경우 36%가 가나안 성도로 나타나 성인보다 더 높았다. 고등학생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무려 46%로 중학생(31%)의 1.5배에 달했다. 크리스천 청소년 3명 중 1명이, 크리스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이들이 성인으로 편입되면서 성인 가나안 성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가나안 성도 비율 (성인 vs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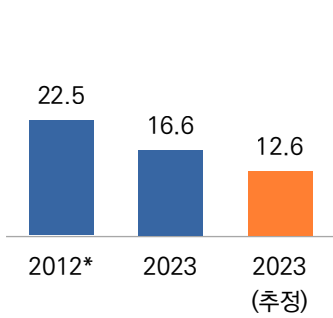
Note) 수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수 0 자리로 표시

[미래 한국 교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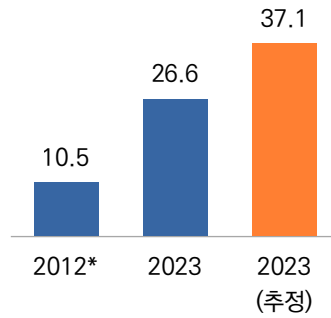
이대로 가면 10년 후 개신교인 전체 인구의 12%대 수준!

- ▶ 한국 교회 출석자 수는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과 가나안 성도 비율을 다른 변수는 통제하고 단순하게 지난 11년간의 추세 기울기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뒤를 예상하면 개신교인의 비율은 12.6%까지 떨어지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37.1%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림]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추정)
(만 19세 이상, %)



[그림] 가나안 성도 비율 추이(추정)
(만 19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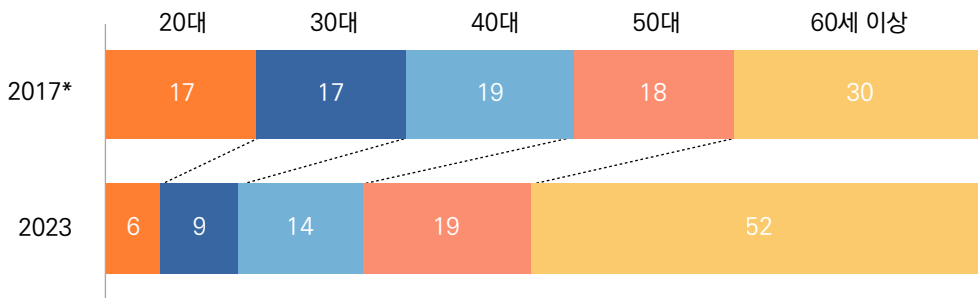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목련,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 20대 교회 출석자 비율, 최근 6년 사이 3배 가까이 감소!

- ▶ 최근 6년간의 교회 출석자**의 연령대 비중을 살펴보니, 2017년 각각 17%인 20·30대의 비율은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60대 이상의 비율은 30%에서 52%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교회는 개신교인과 출석 교인의 감소 속에 현실적인 노인 목회 준비와 젊은 세대의 미래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림] 교회 출석자의 연령대 비중 (%)



*자료 출처 : 한목련,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조사 보고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실제 연령별 총인구를 바탕으로 개신교인 비율과 가나안 성도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

그동안 한국인의 종교실태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갤럽, 통계청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파악해 왔는데, 이번에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종교 분포를 파악하고자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19세 이상 일반 국민/청소년 5,451명이라는 대규모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성인 대상 조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휴대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무작위 원칙을 지키기 위해 RDD(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로 생성된 전화번호로 직접 면접원이 전화하여 질문을 읽고 답변을 받는 방식) 기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조사는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종교 분포 파악과 가나안 성도 비율까지 조사를 직접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사실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탈종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를 가진 한국인의 비율은 2004년 조사에서 57%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37%까지 떨어졌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심한데, 20대의 종교인 비중은 16%, 30대의 종교인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탈종교화는 사회, 경제,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와 교육 수준이 발달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90%의 인구가 기독교인이었지만, 2021년에 63%까지 감소했으며 2050년에는 무종교인이 기독교인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될 정도이다.¹⁾ 현대 문명이 종교를 대체하거나 기존 종교가 더 이상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종교가 없는 삶은 세속에 집중하게 되고 비혼과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탈종교화 속 개신교 인구의 하락도 가중되고 있다.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2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에 16.6%까지 떨어졌다. 20·30대 개신교인의 비율은 각각 9%와 11%로 10년 사이 절반가량 감소해 동일 연령대의 일반 국민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개신교인이 감소하는 사이 가나안 성

도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가나안 성도 비율은 26.6%로 2012년 10.5%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10년 전 개신교인 10명 중 1명 정도가 교회 출석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4명 중 1명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은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인 중 개신교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의 49%, 20·30세대의 58%가 개신교인이라는 점은 한국 종교의 미래에서 '다음세대' 개신교인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집계된 '넘버즈폴' 71차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가 꿈은 '2024 한국교회 키워드'로 '다음세대(25%)'가 가장 많았는데, 목회자 또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교회는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가나안 성도 증가,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 현상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적 문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신앙이 유지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신교 청소년의 교회 출석률은 64%인데, 이들이 20대에 접어들면서 교회 출석률은 55%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이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Pew Research Center 'Modeling the Future of Religion in America',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2/09/13/modeling-the-future-of-religion-in-america/>